

서평 / BOOK REVIEW

「신, 역사 그리고 문화」

오홍철

채은수, 충신대학출판부, 1993



오홍철,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현재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며 과학생회 학술부장, 전주대학교 대학교회 편집부장, 총무 역임, 기독교역사관, 한국 교회사, 기독교 교육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회원이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바라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경 그 자체의 역사인식, 즉 기독교 역사관이다. 특히 서양사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기독교는 헬레니즘과 더불어 서양사상의 2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성경의 역사인식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역사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역사 인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 자체의 역사인식을 직접 연구하는 방법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되어진 근래의 기독교 역사관을 연구한 학자들의 업적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성경 자체의 역사인식을 직접 연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을 살피는 것 역시 필요하다. 그것은 아우구스티누스 만큼 성경의 역사 인식을 명확히 정리한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인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에 대해 계속 연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필자는 기독교의 역사인식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경의 역사인식을 직접 연구하는 것 만큼 바람직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든 비판하든 간에 기독교 역사인식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맥이라 생각된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에서 중세 사상의 방향을 설정하여 중세의 사상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근대의 역사인식도 비록 형태는 변형되었으나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인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역사인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은 서양사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신, 역사 그리고 문화」(채은수 저, 총신대학교출판부, 1993)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조감한다고 언급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역사인식을 제

외할 수 없고 역사인식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소개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서는 서론·결론과 더불어 6편에 걸쳐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역사와 철학의 의미,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철학, 본서의 목적과 내용이라는 단락을 설정하여 아우구스티누스 역사철학의 의미와 본서의 개관이 설명되어 있다.

제1편 직선적 역사관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철학의 특징과 직선적 역사철학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상술해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철학이 가진 특징은 첫째, 인식의 원리, 즉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 있고, 둘째, 전체적 통일성을 추구하는데 계약사상이 성경 계시의 통일성을 준다고 하였으며 셋째, 성경을 역사 해석의 근거로 두는 ‘선험적인 접근’이 특징이며, 넷째, 그의 철학이 호교론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적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했고 경험을 기독교적 입장에 굴복시켰다고 보았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주체인식, 하나님 중심 역사인식과 다른 역사인식과의 차이점, 시간관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근대 사관과의 차이, 직선적 역사철학의 의미를 설명하고 평가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제2편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의 지평, 선과 악의 투쟁으로서의 역사(이원적 역사관)에서는 선과 악의 투쟁으로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이 설명된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를 악의 극복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의 원인이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인간이 선에서 악으로 떨어졌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의 승리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에 대한 인식이 지성과 본능 양자가 각각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 인간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되, 단순한 신비경험이 아닌 지성적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최종목표는 지성을 통한 행복이라고 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은 현재 삶을 긍정하는 행복론이며 진리애의 삶과 역사

를 긍정한다고 설명하였다.

제3편 역사이해의 기초로서의 인식론에서는 우선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식론의 기초가 신앙과 계시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그의 인식론은 신플라톤주의자들로부터 형식적인 면을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최고 실재에 대한 인식, 영원한 진리의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강조하였다. 둘째, 아카데미아 학파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궁극적 진리를 보이는데 도움이 되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감성과 영혼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플라톤과의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넷째, 영원한 진리, 즉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지적인 광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서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적 광명에 대한 인식을 태양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위해 신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째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인식은 신앙이 지식의 전제조건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성경의 역사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제4편 역사주체의 이해로서의 형이상학에서는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형이상학의 특이성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주 역사의 토대로 둠으로써 성립되었고 플라톤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존재에 대한 인식과 존재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각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세계창조,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형이상학적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원자시며 절대적 주권자라고 인식하여 하나님의 우주 창조과정과 그 우주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셋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목적이 사랑과 평화라는 질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천지창조가 한정된 구성을 이루는 것과 그 원인이 되는 씨앗의 두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자적 원리’를 통해 원물질과 창조, 창조와 진화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동일성에서 이질성으로의 진화를 배경하며 우주적 힘의 활력화를 위한 신의 개입이 있을 수 있음을 주장했다. 넷째, 아

우구스티누스의 시간인식은 피조물이 시간에 속박되어 있는데 반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은 순환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시간의 순환이 인간의 존재상실과 역사적 사건인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대속을 성립시킬 수 없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5편 종말론과 역사인식에서는 첫째,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식하는 진정한 가치가 역사 이후의 미래에 있기 때문에 종말론의 사상적 근원이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연유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인식과 당대와의 차이, 그리고 이후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종말론의 역사적 배경이 아프리카와 로마 양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들과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셋째, 소위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 구분은 6단계로 구분되며 각 시기의 특징을 ‘하나님 도성’의 내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 구분이 성경에 입각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넷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과 지상국에 대한 인식에서 이것이 구약의 시편에 기초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뒤이어 암브로시우스와의 차이와, 각각의 형성 단계가 설명되고 있다. 다섯째, 그의 역사 인식은 선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근거하였으므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법은 완전성에 도달하기에는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에 대해서는 올바른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정의는 키케로와 플라톤에게서 영향을 받았지만, 키케로의 것을 바울서신의 의(義)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평화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에 인간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했고 질서의 고요함은 천국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알게 됨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사랑에 대하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체제로서, 하나의 유기체이되 하나님과 연관을 갖기에 신비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는 정치에 대하여는 바른 질서를 가져다 준다고 보고 교회에 대하여는 망명 중인 단체로 인식하였다. 결국 신국과 지상국은 구분되지만 사회와 국가는 긍정하며, 진보적인 역사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6편 문화변화론적 역사관에서는 Richard Niber의 「Christ and Culture」를 떠올리게 되는 내용으로, 여기서는 첫째, 문화 이해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과 지식에 대한 이해를 살핀 뒤 신국의 가치를 설명하고 나서 문화에 대한 성격규명을 하나님 나라에 내포된 가치라고 보았음을 설명하였다. 둘째, Richard Niber의 「Christ and Culture」에 나오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제유형과 아우구스티누스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문화 변화론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째, 아우구스티누스의 문화가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창출이라고 설명하면서 몇 가지의 다른 문화관들과의 비교와 그들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였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함과 아울러 간단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본서의 내용을 목차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보았다. 문두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정리한 것으로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살필 수 있는 책이다.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없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워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잘 설명하였다.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는 플라톤 사상 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각 편에 걸쳐서 잘 설명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Richard Niber의 「Christ and Culture」에 나오는 모델들과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비교를 시도함으로써 아우구스티누스의 문화관을 알 수 있었고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본서가 완벽해 보이지는 않는데,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면 첫째, 참고 문헌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은 좋았지만 본서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 대한 개괄서라는 성격을 가진 이상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한글로 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망라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 물론 본서의 참고문헌에도 어느 정도의 연구성과가 기록되었지만 말이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또 하나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부분이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문화의 변혁자로의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측면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 조화를 이루었는지 말이다. 셋째, 이것은 호칭에 관한 문제로, ‘하나님’이라고 써야 한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신’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사용되었다. 물론 서양사학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의 섭리’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신학자가 그들의 관습을 따른다는 것은 찬성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이라 여겨지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정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조명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필자가 대가의 저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장단점을 잘 파악했는지 의심스럽지만 이 글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역사의식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다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겠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공부하는 사학도, 신학도, 그리고 하나님 중심 역사의를 갖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본서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